

서울 교육 소식

에너지 절약 선도하는 서울교육청 'ESS 통합시스템 효율화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삼성전자(주)는 7월부터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을 학교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장치 등 효율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시스템 효율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삼성전자에서 서울 시내 2개 학교(공할초, 위례별초)에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그린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BEMS)을 무상으로 구축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시스템 운영 기술을 공유하는 등 학교 현장에 적합한 최적 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을 제정하고 공공기관 건축물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앞장서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 도입하기에는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 기술적 운용문제, 학교시설 적용성에 대한 검증, 표준화 기준 등 추진 자원이 마련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설에 에너지 절약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관련 분야 선진 기업 등에 적극적 투자와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삼성전자(주)는 이 사업을 통해 서울 시내 2개 학교에 안정적 설비 투자(약 1억 규모 예상)는 물론 "향후 학교 내 태양광 발전장치 등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이용한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 시책을 교육청과 민간 기업이 협력해 상생 발전시키는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녀교육, 혼자 고민 말고 동아리활동으로 풀어가요 '2017 마포혁신교육지구 학부모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 모집



초등과 자녀를 둔 엄마들이 모이면 열에 아홉은 자녀 진로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들은 서로의 고민과 정보를 공유한다. 이때 좀 더 생산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마포구(구청장 박중섭)는 교육발전을 위한 학부모의 참여 기회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7 마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한다. 학부모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교육을 변화시키는 지역사회의 활동 및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 학부모 스스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5인 이상의 학부모 또는 학부모 단체인 지원 가능하다. 총 10개 동아리를 선발한다. 공개모집 후 동아리로 모이게 된 계기와 활동계획, 사업내용 등을 심사에 신청한 후 동아리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7월 7일까지며, 마포구 교육복지지원센터(마포구 매봉산로 18)를 방문하거나 이메일(mapo069@mapoworkfare.or.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교육복지지원센터 ☎02-303-5284로 문의하면 된다.

마포혁신교육지구 학부모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소희씨는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이다. 그녀는 "엄마들은 정서적으로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바람이 크다. 엄마가 오롯이 아이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자신을 좀 더 성장시키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 발 떨어져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동아리활동을 추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비전하에 마포구는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할을 강화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2017 마포혁신교육지구 학부모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활동 사업으로는 ▲학부모 아카데미 ▲학부모 동아리 활동 지원 ▲학부모 네트워크 활성화 ▲학부모 활동 지원으로 나뉜다.

학부모 아카데미는 마포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교육의 이해, 진로교육과 모니터링교육, 혁신교육 협동조합 설립 과정 및 사례 탐방 등을 교육한다.

학부모 동아리 활동은 학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녀 교육 활동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원한다. 그 외 학부모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활동기를 발굴하며 관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학부모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박중섭 마포구청장은 "이번 동아리 활동이 학부모 개인의 발전을 넘어 혁신교육의 주체 및 지역사회의 활동가로서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더욱 중요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파구, 독서퀴즈대회 참가자 즉흥 공개 모집

송파구(구청장 박중섭)는 7월 4일부터 가족 독서퀴즈대회 "우리는 문화가족, 골든벨을 울려라!"에 참가할 가족들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가족 독서퀴즈대회"는 골든벨 형식의 가족 퀴즈대회로 관내 초등학교와 가족으로 구성된 60인 팀, 120명이 선착순을 겨룰 예정이다.

대회일정은 9월 7일(목) 오후 3시, 송파구청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참가 자격은 초등학생(4~6학년)을 포함한 부모와 자녀 또는 조부모와 손주로 구성된 가족 2인 1팀이 원칙이다. 참가 희망자는 7월 4일 9시부터 송파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www.spilb.or.kr)를 통해 선착순 접수 가능하다.

이번 대회에서는 별도로 선정된 도서 2권(55%)과 송파구 향토·역사·문화·인물 등 일반상식(40%), 사회 이슈 관련(5%)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

선정도서는 고전 소설 ▲80일간의 세계일주(쥘 베른 글, 김원희 역자, 효리원) ▲우리 아빠는 락배맨(양진애 글, 김선애 그림, 낯은산)이다. 특히 '우리 아빠는 락배맨'은 참가가족들에게 특별선물로 사전에 자택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송파구에 관한 일반상식과 사회 문제 영역도 출제될 예정이다. 골든벨 1등 가족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품증서상품이 주어지며 실버벨 2팀, 청리상 10팀 가족에게는 상품증서 상품이 주어진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도 제공된다.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독서퀴즈 대회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책읽기와 가족들과 화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서울시 어린이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시행

서울시 어린이병원(원장 김재복)은 1개 병동 30병상 운영되어 오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7월부터 3개 병동 90병상으로 확대 운영 실시한다. 환자 보호자의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과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법 개정(2016.9.30. 시행)으로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어 2018년 전국 병원으로 확대 예정인 의료서비스이다. 서울시어린이병원은 올해 3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 TF팀을 구성해 간호인력(간호조무사) 채용, 시설환경 개선 등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여 국민 건강보람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으로 2017.5.1.자로 1개 병동 30병상 운영을 개시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에 따른 간호인력 추가 확보로 공공의료분야 신규인력 창출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으며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인력지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김재복 어린이병원장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간병 부담을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향후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충과 시설개선을 통해 공공의료기공체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노무전담부서 '노사협력담당관' 첫 출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노무 업무의 전문성 및 교직원단체와의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강화하고 산재해 있던 노사관계업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설한 '노사협력담당관'이 7월 1일부터 첫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사협력담당관'은 총 17명, 3개 팀(교원·공무원 단체인/교육공무직총괄팀/교육공무직단체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의 단체교섭 및 노사노무업무 주를 담당할 예정이다.

문화 예술 중심지로 거듭나자

서울교육청·금천구 손잡고 중학교 예술교육활동 지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금천구(구청장 장석웅)와 함께 6월 28일 오전 가산중학교(교장 김영선)에서 학교현장의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지자체와의 토론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에 대한 학교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예술체질을 넘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가산중 특목단면토론회에서는 ▲정규교육과정 내 협력종합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 시간 확보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의 다양한 우수사례 및 실천사례 공유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지역 내 예술전문인력 활용 ▲연속 및 공연장소 확충 ▲운영학교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금천구는 중학교 협력종합예술과 연계한 '꿈의 학교'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교에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뮤지컬 협력수업 희망학교 지원 (6개 중학교 1학년 전 학급) ▲생각을 표현하는 교사 6명 지원 ▲지역 예술단체의 강사 파견 지원 등이다.

영하 부문에 대한 지원은 검토 중이다.

금천구에서 예술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영어뮤지컬 '레미제라블' 공연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펼치는 영어뮤지컬 '레미제라블'은 4년제 공영외국어 전문대학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목단면 토론회에 이어지는 가산중학교는 사물놀이, 난타, 밴드 등의 동아리 활동, 음악 교과를 통한 가사와 피아노, 키보드 등 예술교육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학기에는 공연 연습실을 구축해 본격적으로 교과의 뮤지컬을 연계한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협력종합예술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문화예술기관, 유관 예술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을 학교 예술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와 협력종합예술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학교 예술교육의 활성화를 물론이고 학교가 지역사회에 문화·예술·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에티켓통.COM

# 에티켓통 | ETIQUETTETONG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 FEMINE HYGIENE BINS

## 에티켓통

[특허 받은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에티켓통 특징**

- 에티켓통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입니다.
- 에티켓통은 내부 보강철이 분리되기에 내용물을 꺼내기 쉽고, 물로 세척이 용이합니다.
- 에티켓통은 내시외 고강도 플라스틱에 사파노, 탈락방지 처리, 최첨단 리모컨을 통해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에티켓통은 내외장형과 실내외 사용이 가능하며, 저전력시동, 원격제어, 자동제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에티켓통은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을 통해 한 번의 사용이 끝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을 제공합니다.

**\$28 특가판(구별판)**

www.에티켓통.COM | 112-0069 | 02-866-8921

모델명	금액	628 학교용 위생용품번호
XE-ET100형 10입	77,000원	20150128100628
XE-ET100형 20입	99,000원	20150128200628
원고위생용품(10입) 1Box	49,500원	20150406340008
원고위생용품(20입) 1Box	143,000원	20150406340108

생리대 수거장치로 특허받은 제품 : 에티 Q (주)가아이젠이 / www.에티켓통.com ☎ 02)866-8921, 055)242-8921